

## 청렴이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세상

신 지은

평범하게 사는 것이 내 꿈이었다. 일찍 사회에 안주하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저 평범하게 살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이 겨우 중학교 시절. 평범함이라는 꿈을 위해 나는 오히려 여느 친구들과는 조금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특성화고등학교를 입학하여 '안정적인 직장 얻기'라는 목표를 세웠다. 막연했던 내 목표는 내가 전공을 정하고, 전공에 흥미를 가지면서 명확한 꿈으로 발전하였다. 그렇게 평범함을 꿈꾸던 나는 어느덧 열아홉의 나이에 공기업에서의 조금은 빠른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2016년,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현재 우리 사회에 있어 '청렴'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사항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법의 시작과 함께 해당자로 속하였고, 때문에 청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욱 많이 접할 수 있었다. 많은 강의를 들으면서 나 또한 청렴에 대한 많은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마음에 청렴이라는 글자를 되새길 수 있었다. 더불어 반부패·청렴 수기를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사실 청렴이라 하면 사회 고위 계층이나 공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나 해당되는 일이지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관련 없는 것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다양한 수기들에서는 정말 내가 본 적도 없는 그런 고위 계층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많이 만나보고 실제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부정부패는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내가 본 사례는 대부분이 부정부패의 유혹을 이겨내고 청렴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여한 사례들이었는데 과연 이 유혹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부패한 행동을 한, 드러나지 않은 사례들은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부정부패가 만연한 이유가 이해되기도 하였다. 평범한 삶을 살아오면서 큰 유혹을 이겨내기란 쉽지 않을 수 있고 이익을 위한 부정부패뿐만 아니라 학연, 지연 등에 얽힌 인연 때문에 난처한 상황을 겪을 수 있다.

이처럼 부정부패에도 각자의 상황이 있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막연하게 이익만을 앞두고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청렴보다는 예의와 정을 중요시 했던 우리 사회에서는 청렴은 뒷전이 되어오곤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들이 하나 둘 계속 겹쳐지다 보면 청렴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상황들은 변명이 되고 그 변명들은 부정부패를 거듭하게 하는 것들에 불과하다.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부정부패가 일어난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었던 반면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상황을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많은 사례들은 나

에게도 처할 수 있는 상황임을 깨닫게 해 주었고 청렴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나 자신에게 강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 번 실천한 청렴이 한 사람의 가장 큰 유산이 되기도 하고 어떤 선물보다 가장 큰 선물 그리고 가장 큰 자부심이 되는 것을 보면서 나 또한 내 자식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리라 결심하였다.

특히 교직 자리에 종사하신 분들의 수기를 보면서, 나도 내가 정말 존경하였던 선생님 한 분의 얼굴이 떠올랐다. 매년 새로운 수업 방식으로 모든 아이들의 집중을 이끌어냈고, 조금 지루하거나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 재밌는 이야기들로 힘든 수업들 사이에서 우리들의 힘을 북돋아 주셨다. 행여 이해가 안될까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식들을 꾸준히 연구하셨고 교과목뿐만 아니라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충고를 해주신,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어 준 선생님이셨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힘들어 하던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고민을 들어 주시고 힘도 주신, 아직도 내 가슴 속 큰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 선생님. 그런 좋은 분과의 수업은 일 년 만에 끝나 버렸다. 기간제 선생님이셨던 그 선생님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다른 선생님의 자리에 밀렸고 그와 함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던 것이다. 당연히 정규 선생님의 자리는 우리가 바라던 그 선생님의 자리일 것이라고, 교과서만 읽고 나가시던 그 선생님과 달리 매번 새로운 수업 방식과 학생들을 진정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오래 우리 곁에 남아 주실 거라고 장담하던 우리에게는 큰 실망이 아닐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미 결정 난 일이고 다른 선생님이 채용이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렇게 실망을 달래었다. 간간히 연락을 이으면서 여전히 위로를 얻고 소식을 전해 듣던 중, 어느 날 우리 학교가 국내 가장 큰 포털사이트 대문을 장식하게 된다. 그것도 불미스러운 일로.

우리 학교 교감 선생님과 채용된 선생님 사이에서 돈과 뇌물이 오간 소식이 사회에 드러난 것이었다. 우리가 생각했던 '다른 선생님이 정교사로 채용된 이유', 그 이유가 고작 돈과 뇌물이었다니. 처음으로 주위에서 접한 불미스러운 일은 내게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다.

거기에 더 충격적인 것은 친구들 반응이었다. '요즘 돈 안 주고 선생님 못 된대.' '생각보다 돈 안 들이고 선생님 됐네.'와 같은 반응들은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가 얼마나 만연하고 어떻게 합리화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그렇게 존경하였던 선생님께서 부정부패에 밀려 능력을 펼칠 수 없었다니. 그때야말로 어떤 강의보다 어떤 설명보다 청렴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것 같다.

그렇게 교감 선생님과 채용된 선생님은 모두 해임되었고 내가 존경하던 선생님은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현재 다른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에게 좋은 교육을 해주고 계신다. 남들보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공직자로서의 청렴함과 자신

의 실력, 학생들을 향한 진심으로써 힘들지만 더욱 값진 길을 택하여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부정부패를 통해 자신의 모든 명예가 실추된 상황, 청렴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룬 상황 모두를 보면서 다시금 청렴의 중요성을 가슴에 새길 수 있었고, 그를 실천하기 위해 많은 강의를 수강하며 청렴과 관련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청렴과 관련된 수기들을 보면서 청렴은 진정한 행복한 결말로 이끄는 힘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이 수기들을 통해 느낀 바가 많은 나에게는 더 이상 부정부패가 있을 수 없다. 항상 청렴 청렴을 외치던 내가 부정부패를 저지른다면 그만큼 부끄러운 일도 없을 것이다. 때문에 내가 청렴을 지키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청렴을 널리 알리면서 훗날의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내가 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 둘 늘다 보면, 청렴이 능력 중 하나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에 살게 될 것이다.